

대학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수강 전후에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자녀교육관 및 자녀양육태도의 차이

The Difference in University Students' Beliefs of Appropriate Education and Child Rearing Attitudes Before and After Pre-parents Education Class

안혜준* · 송승민
중앙대학교 · 수원대학교

Hey Jun Ahn · Seung-Min Song
Chung-Ang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Suwo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current study were to develop a pre-parent education class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ir beliefs after the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6 students who were selected from one university in Kyunggido, South Korea. Students had pre-test and post-test to measure the changes caused by the program. Two instruments were used: Beliefs of Appropriate Education and Child Rearing Attitu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In the post-test,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on affectionate child rearing attitudes. More specifically, students endorsed expression of affection toward a child, positive mother-child relationship, emotional involvement, giving a child equal right after having pre-parent education class. In terms of beliefs on appropriate education, in the post-test students became put more value on process, child, play, experience-oriented learning compared to their pre-test scores. In sum, this pre-parent education class is an effective one, which improve future parents' beliefs and attitudes on appropriate education and child rearing practices.

Key Words : pre-parent education class, child rearing attitudes, beliefs of child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인간이 출생해서 자기가 지닌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절대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모가 제공하는 자녀의 첫 주된 환경이 되는 가정은 초기 경험의 질을 결정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은 자녀들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여

러 선행연구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하고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관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은 특별한 사전 준비 없이 부모가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이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많지 않다는 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 인터넷의 보급으로 육아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문미옥 등, 2001).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의 대표적 인 전통적 기능중 하나인 양육과 사회화 기능이 약화되면

* Corresponding author: Hey Jun Ahn
Tel: 031) 276-5564
E-mail: heyjun@gmail.com

서, 부모 세대로부터 양육에 대한 지식, 정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전수받는 일이 어려워졌다. 또한 이혼과 별거에 따른 한가족 가정, 이혼 후 재혼에 따른 재혼 가정, 청소년이 부모가 된 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원영 & 김정미, 2007).

부모교육은 부모가 된 상태에서 받는 치료적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과 부모가 되기 이전에 교육을 받는 예방적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이병래, 1991). 두 방법 모두 좋은 부모됨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예방적 차원의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예비부모 입장, 자녀의 입장, 사회적 차원에서의 입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예비부모 입장에서는 예비부모교육 강좌를 통해 그들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돕고,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접함으로써 보다 자신감 있는 양육태도를 갖게 된다. 또한 변화하는 성역할 개념에 따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결혼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봄으로써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루도록 하다는 점에서 예비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이원영 & 김정미 2007). 자녀입장에서는 그들의 발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적절한 양육태도를 갖춘다는 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질적 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계발 측면에서 유아교육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효과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높다는 면에서 유아에게 가장 좋은 교사이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들을 통한 효율적 자녀교육이 강조되는 것이다. 정미라(1995)등은 예비부모들이 현재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들이 미래에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예비 부모교육을 정규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내 몇 대학교에서는 예비부모교육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해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교육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의 부모교육으로써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한 이후에 대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예비부모교육 강좌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의 부모교육 관련 강좌들로 인해 미래의 부모인 대학생들의 자녀교육관과 자녀양육태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

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강좌를 구성하여 한 학기 동안 시행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자녀교육관 및 자녀양육태도에 나타나는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강좌가 대학생들의 자녀교육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강좌는 대학생들의 자녀양육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는 부모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양육태도를 갖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문화적 환경, 부모 자신의 성격,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행동, 자녀의 기질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아의 발달에 있어 중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론적으로 연구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엄격한 훈육과 체벌이 가장 효율적 양육태도라고 받아들여져 왔으나 19세기에 들어서 심리학과 소아의학의 발달로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부모 자신이 자녀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의 체계적인 연구는 Freud 학파에 의해 요람에서의 경험이 잠재적으로 쌓여 성인이 된 후의 행동을 좌우하는 원동기 된다는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김지애, 2003).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행동, 정서 및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Fishbein(1975)는 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자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보았다(김지애, 2003, 재인용). 이원영(1983)은 양육태도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혹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부모의 양

육태도는 부모 자신의 개인적 성장과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처럼 양육태도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는 부모나 부모이외의 양육을 담당한 보호자가 자녀양육을 실행함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를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문미옥 등, 2001).

부모의 양육태도를 최초로 이론화한 Symonds (1949)는 양육태도를 과보호적, 지배적, 거부적, 복잡적으로 분류하였으나 그의 이론은 양육태도를 정상적 규준에 의거해서 설명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고 바람직하고 건전한 양육태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원영, 1994, p. 292에서 재인용). 한편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이론은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부모태도 연구도구(PARI: The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를 개발하였다. 또한 애정-거부를 x축으로 하고 자율-통제를 y축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 두 축에 따라 애정-자율적인 유형, 자율-거부적인 유형, 거부-자율적 유형, 거부-통제적인 유형으로 다시 나누었다(노명희 & 박상희, 2002, p.109에서 재인용). Baumrind (1971)은 양육태도를 무조건적 복종 및 요구, 절대 기준을 설정하는 독재적 태도, 유아를 독립된 개체로 자율성을 고무하는 허용적 태도, 독재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권위적 태도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양육태도의 정의만큼이나 분류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등 제 발달 측면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원영(198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과보호적일 때 자녀는 퇴행적, 의존적 사회적 특성을 보였으며, 거부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퇴행적 사회적 특성을 보였다. 한편 자녀의 사회성숙도는 어머니가 수용적일 때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과보호적 태도였을 때이며, 거부적인 태도 일 때 가장 낮았다.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는 반면 부모를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고, 자아상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창의성의 하위요소인 독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정의숙 (2004)의 연구도 있으며, 유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지애(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으며, 적대적 통제적 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허정경(2003)은 자기 조절 능력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인 애정태도, 감독정도에 있음을 밝혔고 긍정적인 자기 조절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독보다는 부모의 애정적 태도를 강조했다. 김성애의 연구(1988)는 부모간 양육태도가 불일치할 경우에 자녀가 정신장애 등의 심각한 발달장애를 나타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시기도 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녀들로부터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 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관습, 사회적 지위, 등 사회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부모의 태도는 통제적, 권위적이 되며 이로 인해 유아의 성장 발달에는 장애를 갖게 될 것이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부모의 태도는 민주적, 자율적, 애정적, 수용적이 될 것이며 이런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미옥 등, 2001).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이들이 미래에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교육관

학자들은 자녀교육관이 부모가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키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관점이라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박준희 (1975)는 자녀교육관을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부모의 목표지향성을 포함한 자녀의 의식 및 행동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며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원영 (1983)이 정의한 자녀교육관이란 유아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모, 교사 등의 성인들이 유아를 어떤 인간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련의 가치관을 말한다. 즉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은가에 관한 교육적 관점 및 견해이다.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양육의 교육적 관점을 밝히는 일은 자녀교육 및 양육에 대한 철학, 의미,

관심을 밝히는 일이다.

이원영 (1983)은 자녀교육관을 아동중심과 성인중심으로 구분하여 인간관, 교육목표,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동중심적 교육관은 아동을 출생시부터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성인중심 교육관은 아동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간, 학습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인간이라고 본다. 교육목표 측면에서 아동중심 교육관은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 개인의 행복감, 능력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에 강조를 두고 있는 반면 성인중심적 교육관은 지식과 특수능력의 습득, 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둔다.

아동중심 자녀교육관에 바탕을 둔 교육방법은 아동의 자유와 솔선성, 과정, 상호작용 및 적용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는 아동의 후원자, 개발자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한다. 현재 유아의 흥미, 주관적 경험을 중심으로 유아 개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자기 발달속도에 맞는 교육방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성인중심적 자녀 교육관에 바탕을 둔 교육방법은 아동의 외형적인 행동의 평가와 교육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사는 지도자나 형성자로서 안내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규율을 강조하며 교육의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단계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 아동의 지적발달 보다는 인격발달의 중요함을 인식하며 유아의 경험과 흥미를, 결과보다는 과정을, 성인이 학습을 주도하기 보다는 유아가 주도하는 활동을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아중심적 교육관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가치지향적일 때의 문제점은 사회적 가치 지향의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겸손하고 조심성은 있으나 자기를 자주 의식하고 열등감을 쉽게 느끼고 억압적 감정을 많이 갖는다.

자녀교육관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성인중심적 자녀교육관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이원영, 1983; 최미경, 1990) 자녀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박홍선, 1998). 오혜진과 주경란(2004)의 연구에서 세대간 자녀교육관을 비교했을 때 성인중심적 자녀교육관에서 자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일치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최근 김석현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관은 대부분은 아동중심이었지만, 유치원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 어머니보다 더 높은 아동중심교육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준 (2004)은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유아중심적 자녀교육관을 지닐수록 교육 목표면에서 결과 중심보다 과정중심의 목표를 중요시하였고 성인중심적 교육관을 지닌 어머니일수록 거부적이고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했다. 교육내용과 방법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흥미와 경험중심으로 유아의 자발성을 길러주려하며 놀이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 유아중심적 교육관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성인중심적인 교육관을 지닌 어머니는 과정상의 보람이나 만족보다는 좋은 결과를 바라며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해 놓고 목표 달성을 기대하며 부모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지나친 간섭을 하기에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의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김성옥(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윤미 (2005)의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이 성인중심적일수록 어머니는 적대적, 무관심,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이런 양육태도를 지닌 어머니의 자녀들은 자기효능감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부모교육 프로그램 (P.E.T.)을 받은 어머니들의 자녀교육관에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 (최미경, 1990). 이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수록 아동중심 교육관을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로 하여금 아동 발달상의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게 하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동중심적 교육관을 갖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최미경(1990)은 바람직한 자녀교육관 확립을 위해서는 학교나 기관에서 1회성으로 시행되는 부모교육이 아닌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일어나는 전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3. 예비부모교육

부모교육은 부모 훈련, 부모참여, 부모 개입 등과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원영 1985, 이원영 & 김정미 2007 재인용). 김정미(2005)는 “예비부모교육이란 10대 미혼부모, 고등학생, 대학생, 미혼의 청년, 자녀출산 이전의 부부 등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 또는 특수한 욕구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부모됨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어 자신감을 갖고 양육에 임하게 하고, 자녀를 즐겁고 행복하게 기를 뿐 아니라 자녀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가르치며, 자녀양육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p.8)이라고 정의했다.

이원영과 김정미 (2007)는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첫째, 현대 핵가족 제도에서는 3~4대가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해 주던 어른이 부재하기에 자녀양육의 책임을 젊은 부부가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을 들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기술 뿐 만 아니라 부모됨에 필요한 역할 및 태도를 익히기 위해 부모가 되기 이전에 학교교육의 기회를 통해 체계를 갖춘 예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발달에 있어서 영유아의 중요성 및 이 시기에 있어서 부모의 중요성이 인간발달 관련 학자들에 의해 강조됨에 따라 예비 부모에게 이를 미리 인식시키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미혼모의 증가, 성폭력, 낙태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생명경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임신, 출산의 과정, 인간 생명의 고귀함, 낙태문제,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 등의 교육을 통해서 결혼 이후에 겪게 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모역할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효과적인 예비부모교육의 시기에 관해서 정미라 등 (1995)은 그 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지만 정규 교육 기관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편적 최종 정규 교육기관이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부담으로 인해 예비부모교육 실시가 사실상 어려우며 발달 과정상 청년기가 청소년기보다 정서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시기적으로도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근접하다는 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비부모교육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물은 정채옥 (1980)의 미혼 남녀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연구가 그 시초가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된 이후 1995년까지는 예비부모들의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에 대한 이해, 유아기 자녀교육태도 및 양육관에 대한 방향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조사한 이재연과 김경희 (1988)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자녀를 갖고자 하는 동기는 부부간의 애정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자녀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가족의 결속을 다진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아의 확장으로서 자신의 분신을 낳아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다는 점, 자녀가 있으면 생활에 자극, 즐거움,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점, 그리고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991년부터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원영, 주영희, 이영자가 저술한 유아교육원리 교과서가 채택되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고등학생에게 가르쳤으며, 1995년 이후 연구들은 그 이전 연구에서 다루었던 부모됨의 동기, 예비부모들의 교육요구도,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었고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원영 & 김정미, 2007). 정미라 등 (1995)은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과 요구를 연구했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예비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남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한 것에 비중을 둔 반면 여학생들은 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부모로서의 전문성 확립에 중요성을 두고 있어 성차를 보인다.

이병래 (2003)는 예비부모로서 대학생들이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12주간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대학생들의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자녀교육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여학생들의 변화가 남학생들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김정미(2004)는 대학생들의 발달심리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후 16주에 걸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기인식, 행복한 가정, 더불어 사는 사회로 구성된 프로그램 내용은 예비부모에게 요구되는 지식, 태도 및 가치, 기술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제시되었다.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학습동기를 갖게 된 것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였다. 연구 결과 인간으로서 자기 인식 영역, 행복한 가정 영역에 대한 영역, 더불어 사는 사회 영역 모두에서 예비부모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의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약하자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예방적 측면에서의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예비부모교육의 제 측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각 대학에서도 예비부모교육 성격의 강좌들이 개설되었다. 4년제 대학의 교양강의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역할과 부모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었다(김정미, 2004). 이외에도 포함된 교육내용에는 이성교제, 임신과 출산 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강의, 아동학대, 취업모, 스트레스 대처 등의 '사회현상과 부모역할'에 대한 내용, 부모됨의 동기나 양육태도, 양육관 등의 '부모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간발달에 대한 내용 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과내용을 종합하고, 예비대학생들의 발달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한 학기 동안 예비부모교육 강좌를 개설한 후에 예비부모교육 강

좌가 대학생들의 자녀양육태도와 자녀교육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 H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인 S대학교의 교양강좌를 신청한 학생들 110명중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하고 결석일수가 한번 이하인 8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은 남학생 29명, 여학생 57명이었다.

<표 1>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영역별 내용 및 문항수 (이병래, 2003)

양육태도 구분	해당 문항		양육태도
	문항수	문항번호	
애정적-거부적	2(4)	5-8	평등주의적 태도
	3(5)	9-13	정서적 개입
	7(5)	28-32	애정의 표현
	9(4)	38-41	의사소통성
	10(5)	42-46	긍정적 부모-자녀관계
자율적-통제적	1(4)	1-4	간섭
	4(5)	14-18	아동행동 통제에 엄포사용
	5(5)	19-23	지나친 접촉
	6(4)	24-27	엄격성
	8(5)	33-37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

<표 2> 자녀교육관 문항 구성 (이병래, 2003)

문항번호	자녀교육관 문항내용	요인명칭
4	좋은 성적 취득 ⇔ 유아발달속도에 맞는 성취	<인간관> 환경에 의한 훈련 ⇔ 내면적 가능성의 성숙
5	훈련에 의한 인간 형성 ⇔ 자연적 성숙에 의한 인간형성	
13	부모조력으로 문제해결 ⇔ 유아 자력에 의한 해결	
4	좋은 성적 취득 ⇔ 유아발달속도에 맞는 성취	<목표 > 결과중심 목표 설정 ⇔ 과정중심 목표 설정
6	공부 잘 하도록 배려하기 ⇔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함	
3	부모가 방향을 잡아준다 아이 ⇔ 나름대로 성장한다	<내용 및 방법> 지식중심 학교교육 ⇔ 유아 흥미, 경험중심교육
8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로 키운다 ⇔ 주변 사물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로 키운다	
10	춤, 노래 가르치기 ⇔ 자유롭게 놀게하기	
1	부모에 의한 분쟁해결 ⇔ 유아자신에 의한 해결	<내용 및 방법> 성인주도 ⇔ 유아주도
9	부모에의 순종우선 ⇔ 자기생각 발표 우선	
2	문자지도 ⇔ 놀이	<내용 및 방법> 특수기능 ⇔ 놀이
7	재능 특기지도 ⇔ 놀이	
10	춤, 노래 중점지도 ⇔ 놀이	
11	부모의 판단대로 교육 ⇔ 유아의견에 의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주입식 학습 ⇔ 자율적 학습
12	강제로 공부하게 유도 ⇔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도록 유도	

2. 검사도구

1) 자녀양육태도 검사도구

자녀양육태도 검사도구는 이원영 (1983)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한 이병래 (1991)의 '결혼 전 여성의 양육태도'의 일부분을 활용한 이병래(2003)의 자녀양육태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 그리고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양육태도 검사는 전체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단계의 평정척도로 되어있다. 각 문항의 내용이 '아주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는 '1'에, '아주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5'에 표시하게 되어 있었다. 문항에 따라 '1'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었다.

2) 자녀교육관 검사도구

자녀교육관은 이원영 (1983)이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를 기초로 해 이병래 (2003)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했다. 전체 13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는 4번과 10번 문항의 경우 2가지 요인에서 해석되고 있다.

3. 예비부모교육강좌 구성과정

2006년 1학기에 현대사회와 아동이라는 아동가족복지

학과 소관의 교양과목을 맡게 된 연구자는 총 16주의 수업일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일을 제외한 14주에 걸친 예비부모교육 강좌를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2006년 1학기에 거친 예비단계를 통해 강좌의 내용은 수정, 보완되어 14주에 걸쳐 실시된 이후 2006년 2학기에 학기 초 사전검사와 학기말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1) 예비 부모교육 강좌 구성, 목표 및 교육 내용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성격의 강좌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발달에 따른 부모역할과 부모교육이론 및 강좌를 다루고 있다 (김정미, 2004). 전국 14개의 4년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들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녀발달과 부모역할, 인간발달, 부모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결혼과 가정, 사회현상과 부모역할, 부모됨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과 가정, 자녀의 발달, 부모교육 이론 및 강좌에 대한 교육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대학생의 요구에 맞는 강좌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

<표 3> 예비 부모교육 강좌의 내용

		주제	가족의 형성 (유아 발달의 미시체계)
1주 -2주	학습 내용		-가족의 고전적/현대적 정의 -가족 생활주기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이론 -대학생의 개방적 성문화 -임신과 출산 -계획임신의 중요성 -인간발달 이론
	교수 방법		-강의, 임신과 출산 비디오 시청
3주 -4주	주제		자녀와의 첫 관계 맺기-애착, 기질(유아 발달의 중간체계)
	학습 내용		-애착의 정의, 애착의 기제 -안정애착 형성을 위한 양육방법 -기질의 정의 -기질에 따른 양육태도, 적절한 양육방법
5주 -6주	주제		부모교육 이론 및 실제 1(유아 발달의 중간체계)
	학습 내용		-부모교육 이론 -자녀와의 대화법
7주 -8주	주제		부모교육 이론 및 실제 2(유아 발달의 중간체계)
	학습 내용		-부모에 의한 정서교육의 중요성 -감정코칭 -나의 유아기/나와 부모님의 관계 회고해보기 (레포트 제출)
9주	주제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유아 발달의 외체계/거시체계)
	학습 내용		-유아기 놀이를 통한 발달의 중요성 -고전적/현대적 놀이이론 -우리나라 조기교육의 문제점
10주	주제		맞벌이와 보육(유아 발달의 외체계/거시체계)
	학습 내용		-맞벌이와 가사노동 분담 문제 -친족에 의한 보육, 보육시설의 종류 및 장단점 분석
11주 -12주	주제		부모-유아의 권리 지킴이(유아 발달의 외체계/거시체계)
	학습 내용		-아동학대 -임양 -고위험 가족에서의 양육
	교수 방법		-강의, 아동학대 관련 비디오 시청 후 조별토론

성격의 강좌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존 교과내용에 부모됨의 동기, 미래 부모로서 자기 이해, 가족 내 의사소통, 나의 부모를 이해하기, 바람직한 아동관 및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강좌를 재구성하였다.

예비부모교육 강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모됨의 기초가 되는 양육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가족의 형성, 자녀와의 첫 관계 맺기, 부모 교육이론 및 실재를 두 파트로 나누어 시행하였고,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의 권리 지킴이를 다루었다. 실제 부모가 아닌 예비부모인 동시에 대학생이라는 발달적 특성에 맞게 강좌를 구성하는 것이 강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아동의 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Bronfenbrenner (1979)의 생태학적 이론에 기초해 강좌를 구성했다. 1-2주에는 미래에 부모가 될 대학생들의 수준에서 이들이 미래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가 되는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통해 자녀를 얻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문제 중심으로 진행했다. 3-4주에는 미시체계에서 확장되어 미시체계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중간체계를 다루었다. 즉, 안정애착이 이후 유아-부모관계 및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개인차의 원인이 되는 기질에 대한 이론 강의의 듣고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또한 나와 부모님의 애착관계 및 나의 기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예비부모로서 '나'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5-8주에는 이 강좌의 핵심인 부모 교육 이론 및 실재를 다루었는데 기존 부모교육에서 너무 깊이 다루지던 부모-자녀 관계 이론 보다는 기본적인 가정 내에서 마음을 여는 대화법, 감정코칭을 통한 아이 마음 읽어주기를 역할극을 통해 실습해보았다. 8주차 수업 이후엔 과제로 나의 유아기, 나와 부모님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해서 원가정의 문제점과 미래 가정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보도록 했다. 9주엔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동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외체계와 거시체계에 초점을 두어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지나친 조기교육의 병폐로 유아비디오중후군, 원형탈모증이 나타난다는 르포를 함께 시청한 후 유아기가 주입식인 암기교육이 아닌 놀이를 통한 학습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임을 배웠다. 10주엔 결혼 후 맞벌이를 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여 가정 내에서 가사분담을 통한 부부 상호지지에 대해 이야기 해본 후 보육시설의 종류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조별토론을 거쳐 본인의 보육시설 선택에 대한 발표를 해보았다. 11-12주엔 아동의 권리 지킴이으로써 성인의 역할을 나의 자녀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아이들에게로 넓혀 아동학대, 입양, 고위험 가족에서의 양육에 대해 살

펴보았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달라진 아동들의 삶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자녀교육관, 자녀양육태도와 직접적 관련된 수업내용으로는 자녀와의 첫 관계 맺기, 부모교육이론 및 실제 1, 2,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이 있었다.

2) 교수학습과정

이 강좌는 수강인원이 100명이 넘기에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교육목표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지정좌석제를 실시하였다. 좌석을 배정함에 있어서 고려했던 사항은 같은 학과 학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수업에의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지정좌석에 기초해서 토론 활동 및 역할극 활동을 위한 조를 구성했다. 매번 강좌는 3시간동안 진행되었기에 3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주로 이론에 기초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 2부는 관련 영상물 감상, 3부는 조별 토론 활동이후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의 중반부에 '나의 유아기 회고해보기'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연구자는 모든 학생에게 이메일로 피드백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매 수업 이후 수업내용에 대한 반성적 저널을 쓰는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했다. 교양수업의 특성상 많은 학생이 저널 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15%의 학생은 3번 이상의 저널을 썼고, 이 중 5명은 매 수업 저널쓰기를 통해 연구자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이루었다.

IV. 연구결과

1. 자녀양육태도와 자녀교육관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태도 차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양육태도 및 자녀교육관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태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남녀의 성별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고, 한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2. 애정적 자녀양육 태도와 자율적 자녀양육 태도의 변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정적 태도의 사후검사 점수는 사전검사 점수보다 높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0.61, p<.00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애정적 자녀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

<표 4> 자녀양육태도와 자녀교육관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태도 비교 결과

변인	성별	관측 수	평균	t-value	p-value	
양육태도	사전	남	29	150.07	-0.91	0.361
		여	57	152.60		
	사후	남	29	154.79		
		여	57	156.96		
자녀교육관	사전	남	29	41.10	0.52	0.598
		여	57	40.56		
	사후	남	29	42.52		
		여	57	43.54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5>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결과

구분	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애정적 - 거부적	사전	86	88.59	8.60	-3.61***	0.001
	사후	86	92.02	7.41		
자율적 - 통제적	사전	86	63.15	9.81	-1.29	0.199
	사후	86	64.21	8.70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율적 자녀양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변화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t=-1.29, p>0.1$).

3. 요인별 애정적 자녀양육 태도와 자율적 자녀양육 태도의 변화

<표 6>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의 요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애정적-거부적 태도에서 평등주의적 태도요인 ($t=-2.70, p<0.01$), 정서적 개입 요인 ($t=-2.20, p<0.5$), 애정의 표현 요인 ($t=-3.90, p<0.01$), 긍정적 어머니-자녀 관계에 대한 요인 ($t=-3.31, p<0.01$)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 모두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의사소통성 요인 역시 사후검사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t=-0.37, p>0.1$). 이는 각 요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가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긍정적

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율적 양육태도에서는 간섭 요인 ($t=3.29, p<0.01$), 지나친 접촉 요인 ($t=2.77, p<0.01$)은 사전검사 점수가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동행동 통제에 엄포사용 요인 ($t=-5.31, p<0.01$), 엄격성 요인 ($t=-1.43, p>0.1$),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 요인 ($t=-2.86, p<0.01$)은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간섭 및 지나친 접촉에 대한 양육태도는 사후검사에서 더욱 통제적으로 나타났으며, 엄포사용, 엄격성,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에 관한 양육태도는 사전검사에 비해 더 자율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엄격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애정적 양육태도 요인에 대한 일관된 변화와는 달리, 자율적-통제적 태도의 각 요인에 대한 예비 부모교육 강좌 참여 후의 변화는 요인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4. 자녀교육관의 변화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표 6> 요인별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결과

	구분	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애정적 태도	평등주의적 태도	사전	86	15.51	1.93	-2.70***	0.008
		사후	86	16.12	1.76		
	정서적 개입	사전	86	19.67	2.50	-2.20**	0.031
		사후	86	20.29	2.24		
	애정의 표현	사전	86	19.28	2.32	-3.90***	0.000
		사후	86	20.40	2.21		
의사 소통성	사전	86	13.99	2.69	-0.37	0.713	
	사후	86	14.09	2.25			
자율적 태도	긍정적 어머니 자녀 관계	사전	86	20.14	2.56	-3.31***	0.001
		사후	86	21.13	1.79		
	간섭	사전	86	11.17	2.22	3.29***	0.001
		사후	86	10.23	2.06		
	아동행동 통제에 엄포사용	사전	86	14.85	3.45	-5.31***	0.000
		사후	86	16.64	3.56		
	지나친 접촉	사전	86	15.58	2.96	2.77***	0.007
		사후	86	14.73	2.54		
	엄격성	사전	86	9.74	2.45	-1.43	0.156
		사후	86	10.08	1.95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	사전	86	11.80	2.77	-2.86***	0.005
		사후	86	12.52	2.66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7> 자녀교육관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결과

구분	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자녀교육관	사전	86	46.12	5.49	-5.08***	0.000
	사후	86	49.74	6.37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자녀교육관은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강좌 참여 후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t=-5.08, p<0.01$).

5. 자녀교육관의 요인별 변화

자녀교육관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요인별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환경에 의한 훈련보다는 내면적 가능성의 성숙($t=-1.38, p>0.1$), 결과 중심 목표설정 보다는 과정중심 목표설정($t=-1.68, p<0.1$), 지식중심 학교교육보다는 경험중심 교육($t=-3.92, p<0.01$), 성인주도보다는 유아주도($t=-1.74, p<0.1$), 문자지도를 비롯한 특수기능 지도보다는 놀이위주 교육($t=-5.63, p<0.01$), 주입식 학습보다는 자율적 학습 ($t=-2.09, p<0.05$)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가족의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으나, 가족 내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역할 모델은 찾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가정 내에서의 부모교육이 어려운 현실이다 (김경희, 이재연, 1993). 가정 내에서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배우기 힘든 현실에서, 부모교육은 예비 부모가 건전한 자녀 양육관과 교육관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결혼 적령기의 미혼남녀들이 그 이전보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심성경, 이현순, 1986), 우리나라의 단위 인구 당 대학생 수가 높음을 고려할 때 (이병래, 2003), 부모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교

<표 8> 자녀교육관에 대한 요인별 사전/사후 비교 결과

요인구분	시간	N3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환경에 의한 훈련 ↔ 내면적 가능성의 성숙	사전	86	8.52	1.25	-1.38	0.172
	사후	86	8.77	1.48		
결과중심 목표설정 ↔ 과정중심 목표설정	사전	86	5.16	1.50	-1.68*	0.096
	사후	86	5.48	1.63		
지식중심 학교교육 ↔ 경험중심 교육	사전	86	10.26	1.80	-3.92***	0.000
	사후	86	11.17	1.80		
성인주도 ↔ 유아주도	사전	86	6.94	1.11	-1.74*	0.086
	사후	86	7.17	1.15		
특수기능 ↔ 놀이	사전	86	8.12	2.09	-5.63***	0.000
	사후	86	9.71	1.94		
주입식 학습 ↔ 자율적 학습	사전	86	7.12	1.25	-2.09**	0.039
	사후	86	7.44	1.37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도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강의를 통한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를 매주 3시간씩 14주에 걸친 예비부모교육강좌로 구성하여 그 효과를 양육태도 및 자녀교육관에 있어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애정적 자녀 양육태도가 예비 부모강좌를 실시한 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자율적 자녀양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애착에 관한 비디오 시청 및 토론, 감정코칭을 통한 부모-자녀 애정적 관계 맺기에 대한 강의 및 역할극이 대학생들이 미래 자녀 양육에서 따뜻한 애정적 태도를 갖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애정적-거부적 태도에서 평등주의적 태도요인, 정서적 개입 요인, 애정의 표현 요인, 긍정적 어머니-자녀 관계에 대한 요인이 강좌 실시 후 더 높이 나타났다. 이는 각 요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가 예비 부모교육 강좌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율적 양육태도에서 간섭 및 지나친 접촉에 대한 양육태도는 사후검사서 더욱 통계적으로 나타났으며, 엄포사용, 엄격성,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에 관한 양육태도는 사전검사에 비해 더 자율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자녀교육관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에 의한 훈련보다는 내면적 가능성의 성숙, 결과 중심 목표설정 보다는 과정중심 목표설정, 지식중심 학교교육보다는 경험중심 교육, 성인주도보다는 유아주도, 문자지도를 비롯한 특수기능 지도보다는 놀이, 주입식 학습보다는 자율적 학습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의를 통해 자녀교육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보여준 이병래(2003)의 연구 결과와 집단 상담을 통해 대학생의 자녀교육관의 변화를 연구한 조희숙 (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녀교육관의 변화는 지나친 조기교육의 부작용이 만연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매우 긍정적인 강좌의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놀이이론 및 놀이와 유아 제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와 조기 영어 교육 비디오 시청 및 과다한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문제점에 대해 다룬 부분이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강좌는 대학생들의 양육태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유아중심의 자녀교육관을 지닐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양강좌로 예비부모교육 강좌를 개발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람직한 부모됨을 준비한다면 예비부모로서의 대학생, 이들의 미래자녀들,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경제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예비부모교육 강좌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적인 면에서의 지원이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부모교육강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기이며 여기에는 강사와의 지속적 피드백

교환을 통한 개인적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후속 연구는 자율적-통제적 태도의 각 요인에 대한 예비 부모교육 강좌 참여 후의 변화가 요인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더 많은 연구대상으로 한 강좌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병래(2003)의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율적 태도가 강좌 실시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래의 연구는 실험집단의 수가 본 연구보다 더 많았으며, 아동중심교육방법의 의미와 중요성, 발달에 적합한 교육방법에 대해 6회에 걸친 강좌를 실행하였다는 면에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전 검사보다 더욱 통제적 양육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난 간섭 및 지나친 접촉 요인에 대한 강의 내용을 보완한 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예비부모교육, 자녀양육태도, 자녀교육관

참 고 문 헌

- 김경희, 이재연 (1993).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김성애 (1988).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현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욱 (199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04).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애 (2003). 유아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 박상희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107-127.
- 문미옥, 이혜상, 민행난, 한수정, 한선아 (2001). 예비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박준희 (1975). 한국인의 교육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홍선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성경, 이현순 (1986). 근로청소년의 자녀관 및 유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일 연구. 유아교육연구, 6(1), 71-99.
- 오혜진, 주경란 (2004). 유치원아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에 대한 세대간 비교연구. 아동교육, 13(2), 165-184.
- 이병래 (1991). 결혼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래 (2003).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유아교육연구, 23(1), 133-152.
- 이윤미 (2005).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 (1994).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이원영, 김정미(2007). 대학생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 서울, 북카페.
- 이재연, 김경희 (1988). 남녀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7, 103-115.
- 정미라, 이희선, 배소연 (1995). 대학생들의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15(1), 179-197.
- 정의숙(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창의성 정서지능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채옥(1980). 미혼남녀의 자녀관 및 유아기 자녀 교육관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2004). 예비부모교육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1990). 부모교육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준 (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경 (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척도 개발과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Part 2, 4, 1-103.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2007. 9. 4 접수; 2007. 11. 28 채택)